

01 교회소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러시아 만민교단 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복음주의 교회 연합집회와 우림북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각 사람의 공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시며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평가하시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03 해외에서 온 편지

“콩고 성도님들도 충만합니다!”

관능의 손수건 집회로 많은 성도가 응답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은혜가 충만한 긴사시만민교회 한진범 목사의 서신.

04 간증

우리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

가족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사업터에 축복받고, 코로나19에 걸린 아버지가 손수건 기도로 회복되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32호 2020년 11월 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상트페테르부르크 복음주의 교회 연합집회

### 러시아 만민교단 주관으로, 목회자들 하나 돼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폴코바 호텔 대강당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복음주의 교회 연합집회가 지난 10월 24일에 열렸다.

이 집회는 러시아 만민교단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맨 왼쪽 상단 사진)의 주관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 사역을 펼

치자는 취지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제한된 인원 150명의 목회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만민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러시아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 총회장 알렉산드르 쉽첸코 목사를 비롯하여 전 러시아 복음주의 교회 연합 대

표 까르파벤코 목사, 국제 복음주의 알리양스 블라센코 목사 등이 인사말과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

특히, 쉽첸코 목사는 자신의 경험과 영성을 토대로 러시아 만민교단을 중심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 연합을 잘 이루고 발전시키는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날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는 동방의 빛 교회 루니취킨 목사 등과 함께 설교를 담당했으며, 몇몇 목사들과 함께 환자를 위한 특별기도 후 성찬식을 집례했다.

이로 인해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연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26회 ‘2020 서울국제도서전’에 우림북 참가

### 한글 87종, 영어 35종의 종이책과 전자책 전시해



우리나라 최대 도서 문화축제인 ‘2020 서울국제도서전’이 ‘XYZ: 얽힘’을 주제로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도서전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 일대 서점 및 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도서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형 전시 행사 대신 온라인 공간과 소규모 오프라인 서점에서 진행됐다.

우리 교회 부설 우림북(대표 김진홍 장로)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한글책 87종, 영어책 35종의 종이책과 전자책을 도서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했다.

이중 사람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영혼육』(상·하)과 마지막 때의 섭리가 담긴 『깨어라 이스라엘』 책자를 오프라인 거점 공간에 전시했다.

전시된 종이책은 도서전 협력사인 인터넷 서점 Yes24와 연결되어 구매할 수 있고 전자책은 Yes24, 아마존닷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에는 국내 198개 출판사가 참여했으며 32곳의 서점과 문화공간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했다. 작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40여 편의 강연과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독자들과도 만났다.

이 도서전 온라인 전시는 2020년 12월 말까지 도서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sibf.or.kr/publisher/151>).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각 사람의 공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0~15)

고린도전서 3장 10~15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마음의 할례와 충성을 통해 깨끗하고 온전하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들이는 공력은 다릅니다. 그러면 공력이란 무엇이며, 각 사람의 공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 1.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나는 시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습니다. 여기서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전반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했습니다. 그러면 공력이란 무엇일까요? 힘을 들여서 쌓아 놓은 정성 곧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느냐에 따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여섯 가지의 믿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란 언제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각 사람의 공력을 밝히 나타내실까요?

먼저, 어떤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주어지는 직분에 있어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바로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되지요. 이때 얼마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험이 오는 때입니다. 13절 후반절에 “...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하며 ‘불 시험’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뜻합니다.

짚은 불을 붙이면 금방 타 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그다

음은 풀이고, 그 다음은 나무이지요. 다음으로 보석은 불에 타지는 않는다 해도 아주 센 불에는 그 성질이 변질되기도 하고 아예 깨져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 쌓은 공력이 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즉 큰 시험을 만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큰 시험을 만난다 해도 전혀 흔들림이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금이나 은에 불을 가해도 변질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욱 순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으면 7년 혼인 잔치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백보좌 대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시간으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정해진 처소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큼 충성하고, 성결되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 2. 불같은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공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으로 건축했느냐에 따라 그 공력은 달라집니다.

만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들이 동시에 불이 났다면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는 달리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집은 쉽게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은 시험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금의 믿음, 어떤 사람은 은의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보석의 믿음, 어떤 사람은 나무의 믿음, 풀의 믿음, 짚의 믿음 등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짚의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란, 짚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가치가 없듯이 쓸데없음을 의미합니다. 풀의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지칭하지요. 나무의 공력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석과 같은 공력을 들인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로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은과 같은 공력을 들었다면 은빛의 순결함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성결을 이룬 마음이지요. 금과 같은 공력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금, 은, 보석, 나무, 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마른 풀에 불과한 짚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금이나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아니 하듯이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불같은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지만 나무나 풀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령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현상유지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마 25:28) 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해를 받음은 물론, 구역원이나 기관원들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 해를 받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기에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분야가 있다는 증거이니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한 연단이 따르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 뜻을 다함으로 쌓은 공력만이 불 시험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온전한 열매로 맺혀 천국에도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 3. 금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금은 불활성 금속으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거독 시 우송료만은 정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처럼 금은 변함이 없어 귀히 여기지요. 은의 경우는 금 다음으로 화폐, 장식품 외에도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보석보다는 단단하지만 금에 비하면 약하고 가벼우며 아름다운 빛과 광택도 덜하여 금 다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보석은 빛깔이나 광택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금이나 은과 같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흠이 생기거나 한 번 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없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값지고 귀한 것부터 불에 견디는 강도와 다양한 용도를 살펴 구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아브라함을 비롯해 엘리야, 에녹, 모세, 바울, 베드로, 동정녀 마리아 등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한 번 만난 뒤 어떤 시험 환난이 닥쳐와도

변함없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썼지요. 우리도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불타지 않는 공력으로 인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4.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시며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과연 누가 금의 공력을 나타냈으며 은, 보석, 나무, 풀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금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불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보석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은혜가 총만하거나 어떤 병을 치료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집합니다. 또한 응답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총만함이 떨어졌을 때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변질되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이처럼 보석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도 어느 정도 보석의 형체가 보존되어 있듯이 불같은 시험에도 그 공력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오면 공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시험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빛을 발하는 금과 같은 공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남편의 갱년기 우울증 치료와 사업터 축복, 다주님의 은혜입니다”



송재연 집사 (50세, 3세대 30교구)

모태신앙으로 교회 일꾼이었던 저는 1995년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님이 섬기시는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임을 깨달으니 신앙생활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1998년 남편(김한영 집사, 54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 속 깊은 데서 출혈이 일어나 수술해도 생존 가망성이 30% 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시어머님(문병례 권사) 말씀에 저는 어머님과 함께 매일 다니엘절야에 참석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남편은 건강을 되찾아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퇴원하였지요.

그 뒤로도 시어머님이 당회장님 기도로 척추염을 치료받으시고, 저는 무안단물(출 15:25)로 쌍꺼풀이 생기는 등 은혜의 체험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구 조장으로 충성하던 제게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 남편에게 갱년기 우울증과 그로 인한 불면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식사도 잘하지 못하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낮이 나간 얼굴로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편안히 죽을 수 있을까?”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밤잠을 못 이루는 남편 곁에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거나 붙들고 기도해 줄 뿐이었습니다. 일 년여 시간을 고통받던 남편이 하루는 사지를 떨며 불안해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남편의 등에 얹고 기도해 주던 저는 남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자 남편은 한동안 쉽게 입을 열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날 새벽이 밝도록 저희 부부는 함께 울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남편의 심령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돼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20여 년 전 당회장님께 기도 받고 개업한 사업터는 IMF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아 주변에서 신기해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다들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하면, 남편은 “아내가 작정 기도 들어갔잖아요”라고 말하니 주변에서는 기도하는 집은 다르다고들 합니다.

시어머님은 다니엘절야로, 거제도의 친정 어머니는 새벽기도로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의 공의를 쌓아주고 계시지요. 몇 년 전에는 공장을 더 큰 평수로 이전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땅값이 올라 현재는 시가 60억 가량이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하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코로나19에 걸린 아버지가 회복됐어요”

제미마 메소 성도 (29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저는 2013년 나이로비만민교회에 전도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험한 말도 종종 했는데, 이 교회에 온 뒤에는 말씀을 통해 선하게 살고 싶어졌기에 항상 감사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망도 갖게 되었지요.

또한 위계양을 앓던 저는 정명호 담임목사님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 받은 뒤 치유되어 이후로는 고통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고 성가대 대원으로 서도 행복하게 봉사하였지요. 그러던 제게 얼마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아버지(프란시스 메소, 61세)는 단도라 지역에서 메디컬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올해 6월 아버지의 병원을 찾은 환자로 인해 코로나 증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호흡곤란 증세가 심하셔서 6월 25일 나이로비의 음바카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왔지요. 더욱이 3일

후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가 되어 케냐타 국립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저는 교회에 이 사실을 전했고, 정명호 목사님은 아버지를 위해 전화상으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뒤 아버지의 코로나 증상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2주가 지나면서는 코로나 증상과 그로 인한 고통이 깨끗이 사라졌으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셨는지 간증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 일로 믿음이 크게 성장하였지요.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범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